



## 초반 '붐업' 성공 복합쇼핑몰 일단 '정중동'

광주시, TF 꾸렸지만 '제로 베이스' 검토  
신활력추진본부 신설 사실상 재논의 단계  
市 "가능하면 이달 중 향후 일정 등 발표"

광주지역 최대 이슈로 떠오른 복합쇼핑몰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초반 분위기 '붐업'에 성공했지만 구체적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복합쇼핑몰 관련 TF까지 구성했으나 조직개편과 인사와 맞물려 관련 논의가 사실상 '울스톱' 됐기 때문이다.

광주시 조직개편과 인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감에 따라 8월부터 복합쇼핑몰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7일 최종 보고회를 열어 복합쇼핑몰과 관련, 7-8월 제안서 접수, 12월 사업자 선정 등의 일정을 제안했다.

이후 광주시는 지난달 12일 복합쇼핑몰 TF를 구성했고 한 달간 운영키로 했다. TF는 문화관광체육실장을 팀장으로 도시계획과장, 주택정책과장, 민생경제과장, 확인평가담당 등으로 구성됐다. TF는 ▲국가 지원 ▲민간자본 투자 ▲행정의 신속한 인허가 등 3박자를 갖춘 복합쇼핑몰 모형, 복합쇼핑몰의 기능·성격·규정 등을 집중 논의키로 했다.

이어 지난달 18일엔 강기정 시장이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과 관련, 디지털 기반 광역통합 유통센터 3천억원, 트램·도로 등 SOC 구축 6천억원 등 9천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복합쇼핑몰은 민간 영역"이라며 난색을 표했고, 지역사회 내에서도 국가 지원 복합쇼핑몰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 강기정 시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고 국민의힘이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한다고 해 복합쇼핑몰 사업과 관련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SOC사업과 상생, 방향성 등을 제안했다"며 "그런데 갑자기 지원 규모와 예비타당성, 민간사업 등을 거론하며 반대 입장까지 밝힌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시장은 "국민의힘 측이 복합쇼핑몰 유치를 공약 등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역할을 하라는 취지로 던진 것"이라며 "국가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현재 복합쇼핑몰과 관련된 광주시 차원의 일정이나 방향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실제

TF 관계자는 "제안서 접수 날짜 등 복합쇼핑몰 추진 계획의 경우 아직 정해진 것이 없고 제로에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직 개편으로 이날부터 신설 가동된 신활력추진본부가 TF를 흡수해 복합쇼핑몰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 전망이 지배적이다. 신활력추진본부는 강기정 시장의 핵심 공약을 추진할 주관 부서다.

복합쇼핑몰 TF 팀장인 김준영 문화관광체육실장이 신활력추진본부장으로 전보됐고 신재욱 도시계획과장과 이승규 민생경제과장도 신활력추진본부로 자리를 옮기면서 복합쇼핑몰 관련 논의를 그대로 승계할 것으로 보인다.

김준영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조직 개편이 이뤄진 만큼 복합쇼핑몰 추진 역시 속도를 낼 것"이라며 "가능하면 8월 중에 향후 일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경기자

강기정 시장·김영록 지사  
3일 만에 또 만났다

양향자 반도체특위 위원장 비공식 오찬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달 31일 양향자 반도체특위 위원장과 비공식 오찬 회동을 갖고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관련기사 3편  
강 시장과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전남도청에서 민선 8기 첫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한 데 이어, 3일 만인 지난달 31일에도 광주 모처에서 만나 1시간 30분 가량 오찬을 함께 했다. 오찬에는 양향자 반도체특위 위원장도 참석했다.

강 시장과 김 지사는 실무진 등 배석자 없이 양향자 위원장과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문제를 놓고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양 위원장은 시·도지사에게 반도체특위 운영 방향, 관련 프로세스 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시장과 김 지사는 상생발전위원회 개최 3일 만에 다시 회동한 것에 대해 지역 정·관가에서는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상생발전위원회에서 11개 신규과제 중 첫 번째로 반도체 특화단지 공동 유치를 채택한 양 시·도지사가 상생 기조를 현안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공동 대응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을 받고 있다. /김재정기자

광주·전남 다시 5천명대 확진

주말·휴일 확산세가 주춤했던 광주·전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5천명대를 넘어섰다.

▶관련기사 7편  
1일 광주·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광주 2천635명, 전남 2천334명 등 총 4천969명으로 집계됐다. 자정 집계분까지 더하면 5천명대를 돌파할 전망이다.

지난달 26일 3개월여 만에 5천527명(광주 2천890명, 전남 2천637명)을 기록한 이후 6일 만에 다시 5천명대에 재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휴일인 전날엔 총 2천943명(광주 1천495명, 전남 1천448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남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광주 1명, 전남 3명 등 총 4명이다. /박선경기자

Today	
신안파크 활용 계획 재검토	3편
인터뷰-정무창광주시의회 의장	5편
초교 입학 연령 '하향' 반발 확산	7편

## "가까운 곳에서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 받게 해달라"

전남도의회, 의과대학 유치 촉구 성명  
"도민 숙원...토론회·서명운동 등 총력"

전남도의회가 전남 의과대학 유치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도민이 어디서나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남에 의과대학을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전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고 응급의료 취약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며 "매년 70만명이 원정 진료를 떠나고 있고 이로 인해 유출되는 의료 비용만 연간 1조 3천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회는 "민간 주도 의료서비스 제공 방식을 택하고 있는 의료 전달 체계 특성 상 의료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 심화로 전남의 응급환자 유출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46%에 이른다"며 "전남은 섬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의료 접근성이 취약하고 30년 뒤엔 고령인구가 도민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아져 의료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의과대학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도의회는 "전남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과 부족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1990년부터 시작된 전남 의과대학 유치 요구는 200만 도민의 절박한 목소리"라며 "30년 넘는 기간 동안 도민들의 노력으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도 전남 의과대학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유치를 약속했지만 번번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남 의과대학 설립" 전남도의회는 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도민이 어디서나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남에 의과대학을 설립해야 한다"고 정부에 조속 추진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 제공)

특히 도의회는 "현 정부에도 전남 의과대학 설립이 포함되도록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했지만 국정과제에 '필수 의료 기반 강화'라는 여지만 남겨둔 채 반영되지 않았다"며 "최근 정부가 3개의 의과대학이 있는 충남에 의과대학을 추가 신설하고 울산과학기술원에 의과대학 설립을 발표한 것에서도 의과대학 하나 없는 전남도민이 느끼는 소외와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 보장 ▲도민이 가까운 곳에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전남 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날 성명 발표를 시작으로 전남 의과대학 설립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범도민 토론회, 서명운동, 권기대회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와 함께 정부 부처·국회 방

문을 통해 도민 숙원인 의과대학 설립을 이끌어 내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29일 제12대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도의원 61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전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 구성 결의 및 위원 선임안'을 의결했다. 도의원 24명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회장과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재정기자

# 제9회 무등산 문학 백일장

광주매일신문은 유구한 문학의 산실인 호남 향토문학정신을 계승하고 가사문학을 부흥해 지역의 문학미재를 이끌어갈 참신하고 역량 있는 청소년 및 문예인을 발굴하고자 제9회 무등산 문학백일장을 개최합니다.

한국문학의 미래를 짊어질 예비문인 발굴과 창작의지를 높일 수 있는 이번 백일장에 글쓰기와 문학에 관심있는 청소년을 포함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응모 부문** ① 시 ② 산문(스토리텔링)

**작품 주제** ① 무등산 및 지역향토성 관련 자유주제  
② 가사문학 관련 자유주제 (스토리텔링은 인물, 플롯, 주제가 담겨있는 창의적인 작품)

**응모 방법** - 응모대상 : 일반부 / 전국 청소년(중·고생)  
- 원고분량 : 시(1인당 3편) / 산문(1인 1편, 5천~6천자 내외)  
- 응모기간 : 2022년 6월 2일 ~ 8월 30일까지  
- 입상자 발표 : 2022년 9월 15일(목) 본사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보내실 곳 : 무등산 문학백일장 홈페이지(<http://gasa.kjdaily.com>)  
- 문의 :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9)

**기 타** - 응모 작품 사안에 이름, 주소, 전화, 이메일, 학생부(학교명, 학년) 기재할 것  
- 기존 발표작이거나 표절사실이 발견되면 수상이 취소됨.

**주 최**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TV>

**후 원**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교육청 · 전라남도교육청 · 담양군 · 화순군>